

“접경의 목소리, 평화를 말하다”

- 통일부, 접경지역 주민들과 평화 토론회 개최(11.10.) -

- 통일부는 11월 10일(월) 오전 10시 30분부터 경기도 파주 ‘캠프그리브스’에서 “접경의 목소리, 평화를 말하다”를 주제로 접경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평화 토론회를 개최한다.
 -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전단, 확산기, 소음 방송 등으로 남북 대치 상황에서 고통받아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, 한반도 평화 공존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접경지역 평화와 주민들의 분단 고통 치유 방안에 대해 서강대 정일영 교수가 기초 발제를 하고, ‘접경지역 주민에게 평화란?’을 주제로 파주 지역 민통선 이북 3개 마을 대표들이 발표 후 주민 70여 명과 함께 자유 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.
 - 토론회에 앞서 사전 간담회에서는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박정 경기도 파주시을 국회의원,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이 마을 주민 7명을 모시고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으로 살아오면서 겪은 ‘특별한 희생’에 대해 경청하는 시간을 갖는다.
- 통일부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고 분단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면서, 그 근본적 해결 방안인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.

붙임 : 토론회 일정

담당 부서	평화교류실	책임자	과 장	박성렬 (02-2100-5840)
	접경협력과	담당자	사무관	박일권 (02-2100-5841)

시 간	내 용	비 고
10:30~11:00	사전 간담회	■ 통일부 차관, 박정 의원, 경기도 김대순 행정2부지사, 마을 주민 대표 7명 등 11명 참석
11:00~11:20	개회식	■ 개회사 : 통일부 차관 ■ 축사 : 박정 의원, 경기도 김대순 행정2부지사
11:20~11:30	사진 촬영	■ 평화기원 퍼포먼스 사진 촬영
11:30~12:00	기조 발제	■ '접경지역 평화와 주민들의 분단 고통 치유 방안 제언' (정일영 서강대 교수)
12:00~13:00	오찬	
13:00~15:00	발표·토론	■ 사회 : 김진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■ 발표 : '접경지역 주민에게 평화란?' (마을주민 대표 3명) ■ 토론 : 정일영 교수, 발표자 3명